

# 문화적 진화와 자유주의의 지혜

민경국(강원대 경제무역학부)

- I. 문제의 제기
- II. 행동조정 문제와 지식의 문제
- III. 행동규칙과 문화적 진화
  - 행동규칙과 지식의 문제
  -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관계
  - 행동규칙의 진화와 자생적 질서
- IV.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 연대감의 도덕과 생물학적 진화
  - 생물학적 진화의 결함과 문화적 진화
  - 도덕의 역할 분담과 자유의 도덕
- V. 몇 가지 도덕철학적 문제에 관하여
  -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와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 I
  -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와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 II
  - 칸트의 절대정명과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 II
  - 문화적 진화와 사회생물학
  - 본능과 이성의 중간에서
  - 공동체주의의 대하여
  - 다윈이전의 다윈주의자들

이 글은 현재 출판 중에 있는 저서 『자유주의의 지혜』의 일부를 다시 세팅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의 저서에서 일부를 빼낸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비약이 있다. 비약이 있는 부분 중에는 다시 쓴 부분도 있다. 급히 쓴 탓에 오자와 탈자 등이 있다. 그리고 참고문헌도 빠져 있다. 따라서 인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 I. 문제의 제기

문화란 인간들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안내하고 조종하는 행동규칙들을 말한다. 관행, 관습, 단순한 전통, 도덕 규칙, 화폐, 법 등이 그런 문화를 구성한다. 제도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제도는 인위성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이런 행동규칙들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 글의 핵심 문제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데카르트-홉스-밀-신고전과 경제학 전통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홉스-스미스-칸트-멩거-하이에크 전통의 진화적 합리주의 사상이다.

이 글은 후자의 사상에서 본다면 행동규칙들의 생성과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몇 가지 도덕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이 글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를 심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행동조정 문제와 지식의 문제

분업적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들의 계획과 행동이 타인들의 그것과 서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조정되지 않으면 그들의 행동계획과 행동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분배문제 또는 자원의 배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행동조정이 사회적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타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목표, 행동계획,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다. 이를 모르고서는 그들의 행동과 타인들의 행동이 서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익명의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반응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르고서는 어떤 행동조정도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행동조정을 위해 필요한 그런 지식은 한곳에 모여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존재하는 그런 지식을 전부 수집 가공해야 한다.

그런데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그 하나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다. 다른 하나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로조차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 암묵적 또는 초 의식적 지식이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들이 가진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가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암묵적 또는 초 의식적 지식의 존재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초 의식적 지식은 나 자신도 모르고 또 내가 가진 초 의식적 지식을 타인들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부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21세 때에 쓴 저서 『감각적 질서』에서 매력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인간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는 사회질서를 위해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라는 사실이다.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 이것이다. 이 전통이 흄-아담 스미스-아담 퍼거슨 등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다.

자원배분이나 분배정의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철학이나 사회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행동의 동기이다. 이런 동기를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한 것이 18세기 샤프츠베리 (Shaftsberry) 그리고 고드윈(W. Godwin) 등은 인간의 이타심을 전제하고 이론을 개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오늘날의 공동체주의도 이런 전통과 한통속이다. 이기심을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홉스-벤담-존 스튜어트 밀-케인즈-롤즈이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들이 구조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타인들과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하이에크가 일생동안 고민했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고민으로부터 그는 진화 이론적 제도이론을 개발했다.

### III. 행동규칙과 문화적 진화

인간들에게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들은 수집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메커니즘은 인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 때문이다. 그 어떤 정신도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들을 전부 수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유자본주의에서 그것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가격구조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공동으로 지키는 행동규칙들이다. 이들이 인간이성의 구조적인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지혜롭다.

#### 행동규칙과 지식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의 묘미는 가격현상이다.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가격이 “저절로” 생성

된다. 가격 속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인간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선호, 의견, 생각, 목표, 등에 관한 현장지식을 간추려서 반영해준다. 이런 가격들은 재화의 상대가치를 알려준다. 가격이 없이는 상대가치의 비교도, 그리고 대안들의 평가도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제계산도 불가능하다. 가격구조가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성공하려면 해서는 안 될 일(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지식(“인지적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다. 행동규칙들이 그것이다. 도덕규칙, 종교규칙, 단순한 전통, 관행과 관습, 등과 같은 행동규칙이다. 재산권 할당에 관한 규칙, 약속 이행의 원칙, 동의에 의한 재산 이전 원칙 등과 같은 행동규칙들도 그들 중 한 부분이다(Hayek, 1969)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암목적 행동규칙이다.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의식할 수 없는 행동규칙, 즉 초 의식적 규칙이다<sup>1)</sup>.

예를 들면 정의감과 법 감정 등이 이에 속한다. 재산권과 관련된 그리고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규칙들 가운데 이런 초 의식적 규칙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공유된 초 의식적 규칙 때문에 서로의 관행과 관습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초 의식적 규칙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행동규칙들은 지시나 명령과 같이 특정의 행동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행동을 당연 금지하는 또는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들의 상황이나 달성할 목적 또는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의미의 소극적 도덕이다<sup>2)</sup>.

이런 행동규칙들은 우리에게 책임영역, 타인들에 대한 행동방식, 반응방식을 알려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행동규칙들은 수많은 사람들, 수세대의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규범적 지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 속에는 수많은 행동규칙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전부 열거할 수도 전부

---

1) 행동규칙들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사법(私法)처럼 법전화 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전화는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私法)과 같이 법전화 된 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보잘 것 없다. 어감이나 정의감 또는 법 감정 같이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암목적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규칙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인 도덕적 기반이다.

2) 그런 특정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째로 그것은 개인을 중시한다.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집단주의를 배격한다. 두 번째로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 타인의 신체, 재산,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이다. 이런 도덕이 없다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하다. 셋째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한 충실성이다.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원칙이다. 마지막 넷째로 정의의 규칙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도덕을 내포하고 있다. 정의의 규칙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한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행동규칙들이 사회구조의 두꺼운 층을 형성한다. 이 속에서 우리는 타인들과 거래하고 장사하고 생산하고 또 인간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행동규칙들은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규칙들이 없다는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관하여 알 수가 없다. 이런 행동규칙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합리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행동규칙들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목적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규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 이성이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 무지에 대한 적응이다.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면 행동규칙이 불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Hayek, 1969):

“행동규칙은 우리의 구조적인 무지를 다루기 위한 수단이다..... 전지전능한 인간들 끼리는 행동규칙이 필요 없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도덕 및 법질서를 연구한다면 그런 연구는 핵심적인 문제를 경시하게 된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간들이 사회는 두꺼운 행동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규칙들은 수 세대를 거쳐 인간들이 겪은 경험들을 반영한다. 그들이 수세대 동안 습득한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를 “지식의 저장고”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행동규칙들은 인간들에게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가격들과 행동규칙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시장경제는 웅대한 “의사소통체계 (communicative system)”이다(Kirzner, 1989). 가격구조와 행동규칙들을 통하여 개개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지식이 소통된다.

####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 또는 문화와 인간 이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관행, 관습, 도덕규칙, 단순한 전통, 화폐, 소유권 규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는 수세대 동안 인간들이 제각기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 암묵적 지식을 비롯하여 모든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의 존재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사회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사회의 종속함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인간 이성의 창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반대이다. 문화가 인간의 이성을 형성한다. 사회가 인간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것은 이성이 먼저 생겨나고 이 이성에 의해 문화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

이성에게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화가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발한다. 문화를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적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와 독립적이냐 아니냐의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문화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을 사회(문화)와 독립적이라고 보고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사상을 가짜 개인주의라고 비판한다. 이런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고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를 가짜 자유주의라고 말한다. 신고전파의 경제학, 신고전파의 법경제학, 거래비용론, 사회계약론, 벤담-밀의 공리주의가 전부 이런 가짜 개인주의이다. 인간은 “규칙을 따르는 동물(rule following animal)”이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인간이 규칙을 따는 것도 무지에 대한 적응이다.<sup>3)</sup>

인간의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화(행동규칙과 제도)라고 한다면 이런 문화는 인간 이성에 의해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들이 시장경제의 가격과 그리고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각종 행동규칙들 때문에 비로소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 가격과 행동규칙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주장은 제도와 관련하여 진화나 창조냐의 문제, 창조설과 진화설의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성에 의해 문화를 창조했고 또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하이에크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제도의 설명을 인간의 합리적 행동으로부터 도출하려는 모든 사상은 이런 구성주의에 속한다. 그것은 계획이론이나 다름이 없다.

### 행동규칙의 진화와 자생적 질서

인간이성이 계획하여 행동규칙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언어, 도덕규칙, 관행, 관습, 전통, 법 그리고 시장과 화폐 등과 같이 어떤 정신이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된다. 아담 스미스와 함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을 확립한 아담 퍼거슨을 인용한다면 “인간행동의 결과이지 인간계획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인위적 질서 또는 계획한 질서가 아니라 자생적 질서이다. 문화는 그래서 자생적질서이다. 문화적 진화는 자생적 질서와 쌍둥이 이념으로 여겨도 좋다. 그것은 노 스의 의미의 비공식 규칙의 생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화적 진화 또는 자생적 질서는 단순히 계획되지 않은

---

3)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간행동을 가이드 하는 것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간은 “규칙을 따르는 동물(rule-following animal)”이라는 것이다. 이런 규칙의 역할은 해서는 안 될 행동, 추구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런 행동을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규칙을 따름으로써 인간은 목적합리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따르는 것을 규칙합리성이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신고전파의 극대화 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지식 이론적 재산권이론이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규칙합리성이다.

질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획되지 않고 저절로 형성되는 것들은 수없이 많다. 진화과정에서 수많은 제도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인도와 같은 캐스트 시스템, 유교와 같이 서열과 계층을 중시하는 제도, 서자(庶子)의 사회적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제도와 전통이 형성된다.

진화적으로 형성된 전통 가운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중시한 것은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제도와 전통이다. 이에 속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 사유재산의 안정, 동의에 의한 재산의 이전, 계약의 자유, 연립의 자유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도덕규칙과 제도이다.

자생적 질서의 진화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런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질서의 진화이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진화의 종착점이 자유주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IV.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행동규칙들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문화적 진화는 후천적이다. 배워 습득한 것이다. 배워 습득한 행동규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규칙이다. 타인들의 재산과 신체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행동규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생물학적 진화는 선천적이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이 타고난 것들은 인간의 생리적 신체적인 특질과 그리고 본능적인 행동패턴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의 결핍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진화의 선물로서 자유와 자유 시장경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의 결핍을 극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지혜롭다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문화적 진화가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의 결핍을 극복해 준다. 첫째로 문화적 진화는 인간의 신체 또는 감각도구의 불완전성을 극복해 준다. 두 번째로 문화적 진화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패턴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준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도덕 규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선행의 도덕규칙이다. 다른 하나는 정의의 도덕 규칙이다. 정의의 도덕의 원천은 문화적 진화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선행의 도덕규칙의 원천은 무엇인가를 설명하자.

#### 연대감의 도덕과 생물학적 진화

선행의 도덕 또는 타심의 도덕은 다양하다. 연대감, 나누어 먹기 모럴, 경쟁을 싫어하는 것, 그룹에 대한 애착심과 애정, 집단주의 사고, 감성적인 사고, 책임을 타인이나 집단에게 돌리는 것 등이다. 이런 도덕의 원천은 무엇인가?

정신구조의 근원은 고고인류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원시부족사회의 삶의 방식에

서 진화된 것이다. 원시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수령과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지어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나누어먹는 관계였다. 그들은 부족과 혈연으로 소규모 집단(15~30명)을 이루어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나누어 먹으면서 애정과 연대로 뭉쳤다. 이것이 “부족사회의 정신구조(tribal mentality)”이다. (Hayek, 1976)

이런 정신구조는 호모 사피엔스의 신경구조와 본능이 형성되면서 점진적으로 생성된 태도이다(Hayek, 1976; Eibl-Eibesfeldt 1986). 이런 태도를 구현한 분배제도 속에서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았다. 인류는 대부분의 기간을 연대감을 가지고 집단생활 속에서 나누어먹으면서 살아온 것이다.<sup>4)</sup> 따라서 원시인들의 부족사회의 정신태도가 우리의 본능에 정착되었다. 생물학적 진화를 거쳐 오늘날 우리의 본능 속에도 아직 남아 있다.<sup>5)</sup>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의 인식대상이 바로 이런 본능적인 인간행동, 본능적인 모델과 같은 행동규칙, 본능적인 선호구조이다(Wilson, 1975; Dawkins, 1971).

이런 본능적 모델이 아직도 우리의 유전인자에 정착되어 있다. 오늘날 이런 본능을 구현하여 등장한 미시사회의 예를 들면 가족, 친족관계, 동창회, 향우회 그리고 친구, 친지 관계 등이다. 취미클럽 등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체도 이에 속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시사회에서 이런 도덕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인간사회가 소규모 그룹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다. 그룹 내에서 그룹 구성원들은 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서로 만지고 느끼면서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들과 행동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감각적 도구를 통하여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언제나 역지사지도 가능했다.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감각적 기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타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동감적 상상도 가능했다. 이심전심도 가능했다. 그들은 그룹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다.

#### 생물학적 진화의 결함과 문화적 진화

연대성과 이타심의 도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각기 처한 상황을 세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멀리 볼 수도 없다. 우리의 귀도 멀리 들을 수 없다. 우리의 후각과 촉각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우리의

---

4) 인류가 다른 영성동물과 분리되어 살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을 24시간으로 본다면 그 중 23시간 56~7분 동안 인류는 무리를 지어 수렵, 채취 생활을 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발달과 자유의 도덕 속에서 살기 시작한지는 3~4분 정도 밖에 되지 못했다.(North, 1992).

5) 오늘날 이런 본능을 구현하여 등장한 중간우주(mesocosmos)사회의 예를 들면 가족, 친족관계, 동창회, 향우회 그리고 친구, 친지 관계 등이다. 취미클럽 등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체도 이에 속한다.



이런 감각기관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인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소규모 사회에 매우 적합하게 진화되었다<sup>6)</sup>. 연대성 도덕도 이런 소규모 사회의 도덕이다.

따라서 연대성 도덕과 우리의 감각기관의 인지능력은 서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역지사지, 동감적 상상, 이심전심을 가능하게 하는 원시사회와 같은 소규모 사회에 적응되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발달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연대성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인구의 증가와 그리고 희소성으로 인하여 아는 사람들끼리만 협력과 협조로는 살아 갈 수가 없었다.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외지인과과도 협력과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낯모르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의 한계 때문이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가까운 사람들, 친지, 절친한 직장동료 등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의 자세한 사정을 알기가 점차 더 어려워져 갔다. 심지어 어려움은 급증하여 오늘날처럼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지사지, 동감적 상상은 불가능하다.

낯모르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메커니즘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도 어려웠다. 아는 사람들끼리의 분업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분업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그 메커니즘이 자유의 도덕과 그리고 가격기구이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낯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행동방식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준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지식은 그들의 감각기관으로는 도저히 습득할 수 없는 지식이다. 감각기관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가까이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자유의 도덕과 가격구조는 우리의 감각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의 감각도구를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유의 도덕과 가격구조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과도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적 진화의 지혜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주

---

6) 사회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상호적 이타심”도 아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용어이다. 농촌에서 농번기에 동네사람들끼리 노동을 교환하는 품아시라는 말이 그것이다. 동네의 어느 한 사람이 소나 가축을 잃어버리면 동네사람들 전부나 나서서 찾아주려는 노력도 상호적 이타심의 표현이다.

의의 지혜이다.

자유주의의 지혜는 생물학적 진화의 결함을 극복하는데 있다. 자유의 도덕과 가격구조는 인간들로 하여금 감각도구로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역에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덕의 역할 분담과 자유의 도덕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의 도덕과 가격기구가 전달해주는 지식의 성격이다. 그들이 전달해주는 지식은 추상적이다. 자유의 도덕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한 규범적 지식을, 특히 “소극적 지식”을 전달해준다.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지식, 또는 누가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전달해주는 지식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다. 누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지기,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해주지 않는다.

요컨대 자유의 도덕과 가격구조가 전달해주는 지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이다. 개인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개별적인 인적 사정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비인격적 지식이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는 개인들이 역지사지, 동감적 상상, 이심전심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인들은 감각도구를 가지고는 소규모그룹을 넘어서 친숙하지 못한 낯모르는 개인들의 고유한 사정들을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대한 확장된 사회에서는 역지사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타심과 연대성의 도덕 대신에 아담 스미스의 신중의 도덕으로 교체했다. 문화적 진화는 연대성 도덕의 실현을 역지사지가 가능한 소규모그룹에게 맡기고 거대한 사회에서는 자유의 도덕과 그리고 신중의 도덕을 맡겼다. 일종의 도덕의 역할 분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이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Hayek, 1971:103).:

“우리는 절친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수천, 수백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개별적인 사정은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의 불쌍함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수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에 관한 추상적인 지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안내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느끼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행하다는 것은 알지

만 개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수천 수백만의 불행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역할 분담으로 개인들은 자유의 도덕을 준수하면서 역지사지가 가능한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여 본능적인 도덕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적 진화의 묘미이고 자유주의의 지혜이다.

그러나 이런 역할 분담을 좀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가 가능한 소규모 그룹에서 연대감 도덕은 알고 있는 사람의 알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를 안내한다. 그러나 자유의 도덕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알려져 있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안내한다.

후자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신중의 덕성이다. 그리고 신중의 행동을 안내하는 것은 자유의 도덕이외에도 가격과 그리고 가격을 통해 실현되는 이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윤의 존재를 비판한다.

## V. 몇 가지 도덕철학적 문제

우리가 인간 사회의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의 관계에 관한 주제를 몇 가지 도덕철학적 문제와 연결하고자 한다.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 문제는 시장관계에서 왜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집착하는가? 상업적 관계에서 이타심보다 이기심이 왜 보편적인가? 인간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인가? 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인간들로 구성된 거대한 사회에서는 이타적 행동과 같은 선행이 왜 드문가?

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실마리는 하이에크의 인간 이성의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타심을 위한 동감의 원리나 또는 역지사지를 하이에크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안다는 것과 이타심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스미스는 동감의 원리를 말하지만 지식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담과 스미스를 구분하는 오해를 야기했다. 그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은 서로 모순된 책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아담”이 쓴 책이고 후자는 “스미스”가 쓴 책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지식의 문제와 역지사지의 문제를 연결하여 하이에크와 아담 스미스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칸트는 합리주의이고 스미스와 흄은 경험주의이기 때문에 칸트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진화의 선물로서 정의의 규칙과 칸트의 지상명령의 관계를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흄-스미스-칸트-하이에크의 사상의 일관된 흐름을 찾을 수 있다.

지식의 문제와 동감의 원리 I

시장경제와 같이 확장된 거대사회에서 선행과 같은 이타심, 연대감, 유대감이 부족한 이유를 하이에크는 “지식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이타심의 잠재적인 수혜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인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앎과 선행(善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이다.

선행은 타인들에 대한 동감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상상에 의해 입장을 바꾸어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당신의 처지에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유사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데서 생겨난다.” (Smith, 1976/1995: 566)<sup>7)</sup> 이런 동감이란 “역지사지(易地思之)”와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동감적 상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그 대답은 하이에크가 하고 있다. 그것은 동감의 대상자에 관한 상세한 지식이다. 그 지식은 다음과 같다.

-동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가 돈이 없다면, 몸이 아프다면, 무엇인가를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등에 관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객관적 상황을 알고 그런 상황에 우리를 위치해 놓는 것이 역지사지가 아니다.

-그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그 객관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을 우리가 상상하여 함께 느낀다.<sup>8)</sup>

-객관적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을 상상에 의해 동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지구조를 알아야 한다. 인지구조가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인지구조는 개인들의 성장과정에서 진화적으로 형성된다.

-역지사지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지구조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 관심, 가치를 흉내 내야 한다. 나의 성격,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가치를 가지고 당사자의 입장을 보는 것은 역지사지가 아니다(Smith, 1976/1995: 567).

-우리가 역지사지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런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나는 방식은 주로 당사자와의 대화이다. 그러나 역지사지에 필요한 것들을 당사자가 전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을 전부 당사자가 자신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

7)동감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에 관해서는 그의 (1976/1995: 50쪽)을 참조. 역지사지란 일종의 방법론적 주관주의와 동일하다. 방법론적 주관주의란 행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믿는 지식으로부터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8)자식을 잃은 어떤 부모의 입장을 우리도 부모라는 입장에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입장을 동감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처지 그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다. 처지뿐만 아니라 몸과 성격까지도 바꾸는 것이다. (Smith, 1976/1995: 567쪽)

때문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암묵적이고 초 의식적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지사지는 지식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역지사지와 동감의 상상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그저 알고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세세히 알고 그와 동일시되어야 한다.(Smith, 1976/1995: 52 쪽). 그런 경우에 비로소 동감이 가능하다. 선행의 기반이 되는 동감적 상상 즉, 역지사지는 상대방에 관한 지식의 함수이다. 상세히 알면 알수록 동감적 상상이 그만큼 가능하고 그에 대한 자선의 가능성이 커진다. 동감은 “친숙성(propinquity, acquaintance)”의 함수이다.(Heath, 2000: 3쪽). 친구, 그저 아는 정도의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은 친숙도가 서로 다르다. 동감의 기대도 따라서 다르다.9)

상상적 동감을 위한 이런 지식은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상대방과 직·간접적 의사소통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스스로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로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지식이다. 가까이에서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불완전하게나마 대체로 유사하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들은 세세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빈번히 반복적으로 만나 몸과 마음을 열고 긴밀한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 경우 그는 타인들에 대하여 역지사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낯선 사람일수록 이런 역지사지의 조건에서 멀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인간들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덕성은 얼굴과 얼굴을 아는 대면사회에서 가능하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빈번히 만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아주 잘 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 대면사회의 인간관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하여 서로를 알 수 있는 관계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이 말은 역지사지의 진정한 조건이다. 이타심의 최고 절정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경우 서로 애착심이 있고 서로의 관계에 충실하고 우정과 애정이 인간관계를 지배한다.10)

그러나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지사지의 가능성이 점차 적어진다. 이런 경

---

9) 스미스는 여기에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친구, 그저 알고지내는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동감의 기대정도가 달라진다. (Smith, 1976/1995:52~53 쪽)

10)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이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동일해야 한다. 개미사회와 동일하다.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경우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생리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타인들을 완전히 다 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들과 똑같이 될 만큼 동감의 상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불가능 때문에 완전한 이타심 대신에 이기심이 자리 잡는다.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역지사지에 필요한 지식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에는 선행의 도덕 대신에 신중의 도덕이 지배하게 된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역지사지의 조건과 그리고 이타심의 조건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전혀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웃에서 자주 만나고 서로를 잘 알면 이타심이 발휘될 수 있다. 이타심의 도덕이 가족이나 친구, 이웃 또는 원시부족사회와 같은 소규모 사회에서 우리가 빈번히 목격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농촌문화 등이 이런 역지사지의 강력한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선행의 도덕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의 인지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사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기심 또는 신중의 태도를 보여준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마을과 같이 소규모 사회와는 달리 상업의 영역은 역지사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둘째로 시장관계는 완전히 이타심이 없는 관계이고 오로지 신중의 덕만이 지배하고 비(非)시장관계에서는 오로지 이타심이 지배한다는 이분법을 상업적 관계 또는 비상업적 관계를 보아서 안 된다. 비 상업적 관계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가족과 친구에서 상업적 관계 사이에는 이타심이 점점 없어져가서 시장관계의 한 극단에 이르면 완전히 신중과 이기심이 지배한다. 시장관계만 본다고 해도 가족관계와 비교할 때만큼 이타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얽은 이타심에서 시작하여 점점 이타심 대신에 이기심으로 교체되어 시장관계의 한 극단에 이른다. 시장경제의 도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빵장수나 푸줏간 주인은 이런 극단에 속하는 예이다.<sup>11)</sup>

우리가 지식의 문제와 그리고 역지사지와 이타심의 관계를 보면 스미스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즉, 거대사회와 소규모사회의 문제로 환원된다.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타심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중의 덕 또는 이기심을 발휘한다.

## 지식의 문제와 동감의 원리 II

그러나 이 명제만으로는 스미스의 모순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대규모 사회에서의 도덕규칙으로서의 정의의 규칙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소극적 도덕을 왜 지키는가 문제이다. 아는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것과 똑 같이 낯선 사람의 재산을 훔치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하지 않는다. 정의의 규칙은 보편적이다. 어떻게 이런 보편화가 가능한가? 동감의 원리로 또는 역지사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수 상황,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치관 등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동감할 수 있다. 그런 동감이 가

---

11) 우리가 아침식탁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능한 것은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동일한 심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Smith, 1976/1995: 151쪽):

“정의에 반하는 것은 침해이다. ....그것은 분개의 적절한 대상, 나아가 분개의 자연적 귀결인 처벌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인간들은 불의에 의해 자행된 해악을 보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폭력에는 공감을 느끼고 이를 시인한다.”

신체와 생명, 재산권과 소유물에 대한 침해, 약속과 교환으로부터 기대되는 것에 대한 침해, 이런 침해, 이런 침해를 당한 사람의 심정은 그 친숙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감할 수 있고 당한 사람들의 특수 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역지사지가 가능하다.<sup>12)</sup>

#### 칸트의 절대정명과 스미스의 역지사지

아담 스미스의 역지사지, 또는 그의 고유한 동감의 원리를 보면 칸트를 만날 수 있다. 어떻게 그 두 석학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가? 우선 칸트를 보자.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적 격률이 있다. 그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절대정명(categorical imperative)”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인간은 항상 ‘네가 하는 일이 보편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라’는 격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준칙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편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라는 준칙은 도덕 규칙을 찾을 경우 그 규칙은 개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런 규칙은 특정의 동기나 목적을 고려하지 말고 모든 동기나 목적과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상명령에 따라 도덕 규칙을 찾는다면 그것은 특정의 행동을 당연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규칙이다(Hayek, 1971:251, Hayek, 1976: Ch.8).

요컨대, 지상명령은 도덕 규칙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규칙의 대부분 “소극적 규칙”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스미스와 칸트가 만나는 장소라고 본다. 칸트의 절대정명은 스미스의 “정의의 규칙”에 해당된다.(민경국, 2006).

그런데 칸트의 지상명령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무론적이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를 전제한다면 그리고 인간은 역지사지의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칸트의 지상명령은 당연한 도덕적 격률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다.

---

12) 신체와 생명에 해악을 가한 경우 보복과 처벌, 타인의 재산권과 소유물을 침해하는 경우 보복과 처벌, 다른 사람과의 약속과 교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침해당했을 때 그 보복과 처벌, 이들은 처벌과 보복의 강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Smith, 1976/1995:159~160 쪽)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로운 인간을 인도하는 규칙들은 일반적-추상적 이어야 한다는 칸트의 윤리학적 원칙은 법의 지배의 근거에 놓여있는 기본사상이라는 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의 근거에 있는 기본 사상을 일반적인 윤리학의 분야로 확장한” 것, 이것을 칸트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다(Hayek, 1971:252).

#### 문화적 진화와 칸트의 절대정명

문화적 진화는 행동규칙의 보편화 과정이다. 그런 보편화 과정은 우리의 감각적 도구의 한계에 대한 적응이다. 문화적 진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의 결핍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인지능력의 한계에 대한 적응이다. 그리고 문화적 진화는 칸트의 절대정명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 문화적 진화와 사회생물학

문화적 진화는 과정을 기술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여 만드는 것을 기술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과학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행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간 계획의 결과가 아닌 것의 존재, 이것이 사회과학의 존재이유이다. 그리고 진화사상이야말로 현대사회과학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진화와 사회이론”은 매우 매력적인 개념의 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진화개념을 사용하려는 유행은 이해할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물학자들처럼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유사성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생물학적 진화를 사회적 진화에 적용해도 좋다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정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물학은 유전인자의 이기주의, 이기적 유전자를 기초로 하여 인간들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한다. 유전인자가 이기심을 극대화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두 가지 진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회구조의 형성은 생물학적 진화과정과는 전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의 형성과 관련하여 하이에크는 “인간가치의 세 가지 근원”( Hayek, 1978/1989)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본능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인위적 합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월슨, 피그, 로렌츠 등의 사회생물학과 생물학이 생물학적 인식을 너무 졸속으로 인간사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는 1988년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사회생물학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Hayek, 1988: 24).



“따라서 현대 사회생물학이 범하고 있는 결정적인 오류는 언어, 도덕, 법률과 같은 것들이 모방적 학습에 의해 전달된 선택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분자생물학이 설명하고 있는 유전적 과정에 의해 전달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인간이 도덕 법률, 언어 화폐와 같은 제도를 의식적으로 고안하고 설계했으며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 틀린 것처럼 틀린 생각이다. 후자와 같은 생각은 진화론이 싸워야 할 미신의 유물이다.”

하이에크는 같은 책에서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 (Hayek, 1988: 25쪽).

“문화를 호흡이나 이동과 같은 유기체의 다른 기능처럼 생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언어, 법, 도덕, 화폐의 전통, 심지어 정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를 남용하는 것이고 이론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전적인 전수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배워야 할 전통으로서 무엇이 있는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배워야 할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간 두뇌의 산물도 아니다. 유전자에 의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다.”

생물학적 진화를 사회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독일 후라이브르크 대학 사회학 교수 독스(Dux, 2000: 172)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물학자와 사회생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회문화적 구조의 자연적 조정을 지적해놓고는 이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정신적인, 사회문화적인 존재형태가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문화적 구조는 전혀 유전적으로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존재의 정신적 사회문화적 구조형태는 자연의 측면과는 다른 층에서 형성된다는 비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과정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진화와 연결해서만이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신적인 조직형태는 생물학적 구조와는 독자적으로 형성된다. 생물학적 구조는 그런 정신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하부구조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도에 관한 게엘렌(Gehlen, 1961)의 인류학적 이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도들은 자연적인 본능에 대한 대체물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게엘렌은 문화적인 제도들의 존재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여타의 동물들과 비교할 때 인간행동은 본능에 의해 훨씬 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경제학자 비트(Witt, 1987)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본능의 주권

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해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행동은 가변적이거나 가소적이기 때문에 다변적인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의 이와 같은 열림성 및 가소성은 매우 다양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인간의 적응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엘렌에 의하면, 이런 가소성은 자신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열림성과 가소성은 타인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또한 그 열림성과 가소성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공감된 행동패턴 내지 행동의 규칙성(행동규칙)이라는 의미의 제도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봉사한다는 것이다.

#### 본능과 이성의 중간에서

하이에크의 주장은 인간의 삶의 세계는 생물학의 인식대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은 생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인식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의 세계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행동과 경제적 현상도 문화의 일부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전자 극대화 가정, 또는 이기심의 극대화를 기초로 하여 경제이론을 확립할 수 없다. 사회생물학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혈연으로 연결된 원시 부족사회의 설명에 적합하다.

그리고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유전자 극대화 가정을 전제한 세계의 행동규칙, 즉 본능을 규범적으로 인간의 삶의 세계에 적용할 수도 없다. 이런 적용의 결과가 복지국가,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이다. 이것은 원시사회에 대한 향수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능과 이성의 결탁이다. 이것은 본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과학주의는 자연을 모방하여 질서를 만들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두 패러다임은 인간사회를 지탱해주고 자유를 지속시켜주는 비 본능적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소유권을 존중하는 심성, 계약의 충실성, 그리고 이런 충실성에 대한 도덕적 시인, 성실성, 정직성, 상관습, 종교규칙 등이 그것이다.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와 질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매체이다. 이런 문화적 요소가 없으면 자유를 확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전에도 소련은 자유와 관련된 그 어떤 전통도 없었다. 재산의 존중, 사업에서의 평판과 신뢰의 도덕을 준수하는 것, 자기 책임 도덕 등, 이런 전통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로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런 전통이 거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혁명 후 70년 가까이 전체주의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체제전환은 열악한 전통 때문에 대단히 뒤늦었다.

이에 반하여 동독이나 동유럽 국가는 시장경제에 대한 전통적 기반은 소련보다 양호했다. 소유권을 존중하는 도덕, 책임감, 상도덕 그리고 계약의 충실성 등, 이런 태도 등, 그리고 교회나 일반 시민 사회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도 러시아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 공동체주의의 대하여

공동체주의는 이기적이고 원자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을 전제하는 사회철학이나 또는 사회이론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는 하이에크의 사상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공동체주의는 기적이고 원자적인 유전자가 자기복제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회생물학도 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것도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는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공동체주의에 대하여 비판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공동체주의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기능주의적 집단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일방적으로 문화에 예속되어 있다는 전제이다.

그러나 문화와 인간의 이성은 상호의존적이다. 문화가 이성을 형성하지만 그러나 인간 이성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합리주의자들의 사상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개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도적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무의도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공동체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공동체적 가치로서 연대감과 우정, 친밀감 같은 도덕을 거대한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사회생물학의 생각과도 동일하다.

####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

사회생물학은 생물학적 진화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합성이라고 말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사회적 진화과정에서 “도태과정(selection, Auswahl)”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진화도 이런 도태과정을 중시한다. 진화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도태과정이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런데 도태과정의 개념은 생물학에서 나오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은 진화론의 근원을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찾고 이런 진화이론에 힌트를 얻어 사회과학에 응용해 온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진화이론이라고 하면 언제나 다윈과 연결해야 한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인상을 준 것은 스펜서를 비롯한 19세기 “사회적 다윈주의”와 그리고 오늘날 사회생물학이다.

13) 진화과정은 혁신과정 도태과정 그리고 확산과정의 세 가지로 하부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경국, 1997)

그러나 우리의 지성사를 훑어보면 그런 믿음은 잘못이라는 것이 들어난다. 이런 잘못을 분명하게 밝힌 인물이 하이에크이다. 그에 의하면 문화적 진화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생물세계에 적용한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진화이론이 먼저 생겨났고 생물학적 진화이론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다. 이 문화적 진화이론의 개척자는 하이에크가 입증하고 있듯이<sup>14)</sup>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과 이들의 선배학자 맨더빌(B. Mandeville 1670~1733)이다.<sup>15)</sup> 하이에크에 의하면 맨더빌과 함께<sup>16)</sup> 시작된 진화사상의 전통은 사회과학에서 데이비드 흄, 에드먼드 버크, 아담 스미스, 그리고 대륙의 헤르더, 사비뉴와 같은 역사학파가 확립했다는 것이다.<sup>17)</sup> 그들은 “성공적인 관행과 관습, 도덕규칙과 같은 행동규칙들이 사회에 정착되고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안내한다.”(Hayek, 1969)는 견해를 대표하고 있었다.

이런 진화 사상을 찰스 다윈이 생물학의 유기체에 적용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 사상에서 힌트를 얻어 19세기 형성된 것이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적 다윈주의, 그리고 오늘날 윌슨( E. O. Wilson)이나 도킨스(R. Dawkins)의 사회생물학이다(Wilson, 1975; Dawkins, 1976)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였던 그리고 자신의 은사였던 멩거와 함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진화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유기체와 자연계의 생물학적 진화와 인간사회의 문화적 진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적 진화는 생물계의 진화와는 달리 인간들의 관계를 위한 행동규칙의 형태로 후천적으로 습득된 특질이 전달되는 과정이다. 하이에크는 문화적 진화를 선천성에 초점을 두는 다윈이즘이 아니라 “라마키즘(Lamarckism)”을 흉내 내는 과정이라고 본다(Hayek, 1988).

하이에크는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이해를 위한 기본이고 또 모든 현대사회이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14) 하이에크가 진화사상을 발견한 것이 다윈이 아니라 법과 언어 그리고 도덕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이에크의 문헌은 Hayek(1988), Hayek(1960/1971)이다.

15) 맨더빌의 유명한 저서는 『벌꿀 우화』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사적 악이 공적으로는 덕이라고 주장하여 당시 도덕주의자,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도덕주의를 비웃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책은 판금되는 불운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올리버 테일러 저 김두희 역 경제사상사 수도문화사 1965 76~80쪽 참조

16) 하이에크는 “맨더빌 박사”라는 제목으로 논문까지 쓰고 있다.(Hayek, 1969)

17) 하이에크는 이들을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Darwinists before Darwin)”이라고 부르고 있다.